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⑩

샘물에 흐르는 재생과 불멸의 신화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

성수를 마시고, 그 물로 온몸을 적시고, 또 그 물로 상처 입은 부분을 씻어 내렸다고 한다.

샘물에 관한 많은 상징적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샘물 숭배는 처음에 이교도의 전통으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기독교 문화권에도 침투해왔다고 한다. 샘물 숭배의식에 생명을 부여하는 여신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 사람들은 샘물이 신비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흔히 샘물을 여신의 눈이나 가슴, 혹은 입과 연관시켜 은덕을 베푸는 수혜자로서의 여신의 역할로 상상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여신의 임무를 대개 성스러운 생명의 원천에서 건강한 생명과 풍요를 끌어내 지상의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샘물은 대개 예언의 능력을 지닌 아름다운 정령이 거주하는 위안의 장소였다. 그런 곳은 순례와 숭배의 장소가 되었으며, 신성한 바위나 약초로 장식되어 세속인들이 때때로 사원과 다른 것들을 지니는 장소가 되었다.

기독교 문화가 그와 같은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성한 샘물로 순례를 계속하였다. 그 샘물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기에 기독교 문화의 역할을 피해 샘물을 소망의 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소망의 샘은 애수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각각 독특한 능력과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동양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도 생명 부여 능력을 가진 샘물을 신처럼 숭배하여 감사제를 올리는 곳도 많았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샘물의 근원에 인공의 수반을 세우고, 근처에 그들이 각별하게 여기는 신의 성상들을 갖다놓고 그 장소에 성소로 만들기도 하였다.

영국의 데일즈에는 '우물 단장'이라 불리는 재미있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꽃잎을 따다 커다란 진흙판에 그 꽃잎

들을 눌러 박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아름다운 화관을 우물 위에 걸어 걸어 모든 종파의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달의 여신인 이슈타르는 풍요의 상징인 샘물의 수호신이었다. 그녀의 신전이 생명의 상징인 샘물이 흐르는 천연의 동굴이나 사막의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다.

켈트족 시대에 알자스의 지역에는 디아나 여신이 풍요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신성한 우물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지금도 아이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 샘물에서 관천수를 떠서 부근의 산으로 가져가 바위 위에 뿌린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 사이에는 기우제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항상 부족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샘물에 찾아가 그 샘물을 깨끗하게 한 다음, 그 샘물을 퍼서 자신들의 알몸을 씻는 것을 필연적인 의식으로 여겼다. 이들은 이 과정을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의례로 받아들였다.

중앙아프리카의 바나나 부족의 경우에는 월경 중인 여성들이 샘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혹시 이를 어기게 되면 우물이 마를 뿐더러 그 여자는 병들어 죽는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의 칼림노스 섬 사람들은 월경 주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거나 냇물을 건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맑고 맛있는 물이 있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물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깨끗한 샘물이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우리지역을 생태도시를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도 맑고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서양을 포함하여 물을 잘 다스리고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지역이 풍요로운 고장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동와 박사
前 제경포천시민연합

니 정성껏 빚어서 반달형과 윤달형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뿔'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은 이토록 '뿔'을 좋아하면서 '뿔'을 생활화했던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곡선미를 반달형에 비유하고 그 특성을 은근함으로 규정하고 싶다. 즉 그 곡선은 굴곡이 심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아주 밋밋하지도 않은 중용적 곡선이라고나 할까? 나는 그 원인을 일차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심성이(心性美)에 두고 싶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연미와 역사적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싶다. 그 까닭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민족의 대표적 심성의 하나는 '은근' 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뜻도 있었지만 소나무나 버드나무의 곡선을 유심히 좋아하여 동양화에는 은근한 선을 지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은근한 심성이 가지는 아름다움은 아니다. 버드나무나 기와집 처마의 곡선미가 바로 그것이다. 만일 버드나무가 없음을 생각해 보라! 버드나무의 곡선미가 한 곳에서 모아 놓은 듯하다. 시작도 끝도 없이 교차 순환하는 곡선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묘한 멋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곡선은 부채의 태극 무늬나 대문의 태극 무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디 이쁜인가? 우리 조상들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음식물까지 '뿔'을 부리고 있다. 송편이고 개떡이든 그러며 그 중에서 만두가 더하

하늘을 향한 동경의 자세, 이는 운치와 품격의 극치로 한국 산천 형승(形勝)의 기품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기교적인 중국식 지붕이나 뿔 없이 단조롭고 직선적인 일본식 지붕에 비해 단 한순의 무리나 어긋남이 없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조화를 형성한 한국 기와집의 '뿔'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대로다.

이러한 선의 예술은 고려 청자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청자가 우리 예술의 극치로 꼽히는 이유도 그 곡선미에 있다. 시작할 곳도 끝날 곳도 없는 듯한 그 가늘고 보드라운 줄고 푸른 선은 별거벗은 여인네의 매혹적인 어깨 같다고나 할까! 싸늘한 듯하면서도 다정하며 청초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끈하고 날렵한 곡선미는 매료될 만하다.

이러한 곡선미는 식칼까지 잘 나타나 있다. 다른 나라의 칼이 쓰기에만 편리하게 만들어서 칼날과 칼등의 수평을 이루 어 붙어 으레 뾰족하게 마무리된 것과는 달리 우리의 식칼 같은 곡선미를 연상하게 산뜻이 위로 감아 올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곡선미의 결정체가 바로 태극기다. 만일같이 둥근 원 안에 음양을 상징하는 청홍 교차의 곡선미는 한국의 곡선미를 이 한 곳에서 모아 놓은 듯하다. 시작도 끝도 없이 교차 순환하는 곡선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묘한 멋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곡선은 부채의 태극 무늬나 대문의 태극 무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디 이쁜인가? 우리 조상들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음식물까지 '뿔'을 부리고 있다. 송편이고 개떡이든 그러며 그 중에서 만두가 더하

특별기고

한국인의 멋 ②

버선코의 날카로운 각선은 한국인의 외유내강적인 의지력의 발현

2. 멋의 특징은?

I. 외형적 멋

(1) 선의 멋

나는 한국인의 '뿔'으로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이 '선'이다. 조형 예술의 선과 색, 모양 중에도 가장 뛰어난 것이 선이다. 물론 선은 동양화의 본질이기도 하나 특히 한국 예술에 나타난 선은 곡선미가 뛰어나다. 그 곡선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매끈하며 '은근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파격과 변화에 의한 독특한 '뿔'을 지어내고 있다.

이러한 곡선미는 여인네의 옷을 비롯해서 기와집 추녀나 청·백자와 회화, 석굴암의 입일면상, 태극기, 심지어는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나 음식물까지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도 곡선미가 응집된 여인의 옷, 특히 저고리와 긴 치마의 곡선과 직선의 조화, 유난히 길게 드리워진 옷고름과 깎기기가 보일듯말듯한 짧은 저고리의 파격, 외치 버선의 곡선 등은 '뿔'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저고리 배례(소매)의 동글고 은근한 곡선을 비롯해서 폭 파인 도련의 곡선, 선의 각선과 곡선의 조화, 그 위에 흰 동정의 예리한 직선적 과격미 등은 곡선미의 향연이라고나 할까? 특히 여유 있게 드리워진 긴 치마의 주름이 걸을 때마다 일렁거리는 부드러운 곡선, 그 위에 바람에 나부끼는 짧고 긴 옷고름의 앙상함의 미, 남아있 듯 한 외치 버선의 반달형 곡선, 발바닥의 두 번이 어긋난 반달형 곡선이 사투 가파르게 휘어져 내려오던 발들의 곡선과 마주치는 버선코, 지금까지 모든 곡선이 온몸 이곳

으로 모여져 분출된 듯한 버선코들의 하늘을 향한 날카로운 각선의 파격적 조화미는 확실히 한국 예술미의 극치라 할 만하다.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넘쳐 흐르는 곡선의 물결을 일며 걷는 여인네의 걸음 걸이는 그대로가 울퉁이 예술인 것이다. 그 중에도 폭 파인 도련은 한껏 부풀어 오른 여인네의 깎기기가 흰 살결을 보일 듯 말 듯하게 드러내는 데서 '뿔'을 돋굴 뿐 아니라 주름이 물결치는 긴 치마의 폭이 바람에 휘날릴 때 흰 속치마가 보일 듯 말 듯하게 훑히듯 드러나는 데서 느끼는 '뿔'은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여인네의 옷의 특징은 한 마디로 '은근한 뿔'이라고 할만하다. 선과 모양이 그러저 듯할 때만 그렇다. 관능미를 있는 대로 노출시키는 양장이나, 몸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직선적인 중국옷이나 일본, 월남 등의 옷에 비해 우리의 한복은 몸을 은사기되 안전한 밀폐가 아니라 어느 한 쪽의 숨구멍을 터 놓아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곡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그 구조를 비롯한 곡선의 파격이나 경박보다는 겸허와 절제음의 '은근한 심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곡선미는 기와집 추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드럽고 은근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지붕의 곡선이 하늘을 향한 처마 끝에 매주치며 매듭지어져 고개를 번쩍 든 각선의 품격, 이것은 버선코와 저고리 선의 '뿔'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더욱이 이중으로 된 겹치마의 파도선, 운치, 용마루 밑 원형 그대로의 동그스런 곡선과 대문보의 의젓함, 그 밑에 네모진 직선으로 버티고 있는 기둥들의

하늘을 향한 동경의 자세, 이는 운치와 품격의 극치로 한국 산천 형승(形勝)의 기품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기교적인 중국식 지붕이나 뿔 없이 단조롭고 직선적인 일본식 지붕에 비해 단 한순의 무리나 어긋남이 없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조화를 형성한 한국 기와집의 '뿔'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대로다.

이러한 선의 예술은 고려 청자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청자가 우리 예술의 극치로 꼽히는 이유도 그 곡선미에 있다. 시작할 곳도 끝날 곳도 없는 듯한 그 가늘고 보드라운 줄고 푸른 선은 별거벗은 여인네의 매혹적인 어깨 같다고나 할까! 싸늘한 듯하면서도 다정하며 청초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끈하고 날렵한 곡선미는 매료될 만하다.

이러한 곡선미는 식칼까지 잘 나타나 있다. 다른 나라의 칼이 쓰기에만 편리하게 만들어서 칼날과 칼등의 수평을 이루 어 붙어 으레 뾰족하게 마무리된 것과는 달리 우리의 식칼 같은 곡선미를 연상하게 산뜻이 위로 감아 올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곡선미의 결정체가 바로 태극기다. 만일같이 둥근 원 안에 음양을 상징하는 청홍 교차의 곡선미는 한국의 곡선미를 이 한 곳에서 모아 놓은 듯하다. 시작도 끝도 없이 교차 순환하는 곡선미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묘한 멋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곡선은 부채의 태극 무늬나 대문의 태극 무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어디 이쁜인가? 우리 조상들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음식물까지 '뿔'을 부리고 있다. 송편이고 개떡이든 그러며 그 중에서 만두가 더하

교육에세이 79

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자녀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이호연
평택초등학교 교장

6년 전 필자가 교장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 5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자모담당 4명이 교무실로 들어 오셨다. 평상시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터라 어찌했든 소피에 앉기를 권하고 차를 대접했다. 자모담당의 인상을 살펴보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표정들이었다. 차를 마시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내용인즉 6학년 남학생 1명이 남학생 4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4명의 남학생 1명의 남학생을 폭행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1명의 남학생이 4명의 남학생을 집단폭행했다니 말이다. 옛 말에 한사발 말 듣고 송사 못 한다고 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자모담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생각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2일 후에 함께 만나 내용을 들어 보자고 했다.

분들도 계셨다.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 보니 4명의 자모담들께서 믿을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유를 알아 보았다. 가해 남학생은 체격도 호리호리하고 나약해 보였으나, 피해 남학생 4명은 체격도 우람하고 건강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는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 보니 가해 남학생의 형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먹 '뿔'이라고 했다. 만일 뿔 버렸었다가 가해 남학생의 형에게 알려지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남학생들의 자모담들은 가해 남학생을 전학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반으로 옮겨주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해 달라면서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에 탑재하고 청와대까지 알리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여윌 주겠다고 했다. 정말 완강했다. 교감으로서 이 사안의 해결은 자라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소위 말하는 '원인'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모담들과의 대화를 해 보니 나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학부모와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생각은 적중했다. 처음부터 대화는 순순하고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결국 가해 남학생과 피해 남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가해 학생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피해 남학생들도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이 좋게 잘 지내자고 화해했다.

이 학교폭력의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이라고 어리게만 볼 수 없다는 것과 자리에 대해서 부모가 가장 잘 알 것 같아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귀엽고 사랑스런 내 자녀가 건강 한 몸과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아울러 부모로서 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눈여겨 해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하며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학교폭력 피해 체크 리스트) 1. 몸이 아프다고 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2. 이유 없이 '집학 가고 싶다.' 말을 자주 한다. 3.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갔거나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4.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없어버렸다고 한다. 5. 노트 등에서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6.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많았을 돈을 가져간다. 7.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8.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9. 친구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서 때 때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불쾌해한다. 10.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11. 갑자기 성격이 변해진다. 12.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얼마나 동생 등 자신에게 만만한 대상이 폭력을 쓰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문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600여 회원은 일본 문부와 학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는 표기를 삭제하고 일본 관리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영토의 역사적 입증을 확실히 하여 세계민방에 실증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여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실천하여야 한다.
3.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박살내자!
4.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

2008년 7월 24일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일동

독도는 우리 땅
우리영토, 우리역사를 바르게 지키자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고문 박용구 / 회장 이병업 / 여성회장 지정옥 / 부회장 연재원
부회장 배인수 / 부회장 한재홍 / 부회장 이한철 / 부회장 조도행
부회장 김명규 / 부회장 함철동 / 감사 김철형 / 감사 조성국
소출읍위원장 우용철 / 군내면위원장 이용현 / 나촌면위원장 김창성
가산면위원장 이덕순 / 신북면위원장 박창수 / 창수면위원장 김용식
영종면위원장 양영원 / 일동면위원장 라득현 / 이동면위원장 박수문
영북면위원장 김진석 / 관내면위원장 이원식 / 화현면위원장 임종호
포천동위원장 이한일 / 선단동위원장 이금묵 / 이사 이한우
이사 문재길 / 이사 김재원 / 이사 김용순 / 이사 강운선 / 이사 한의숙
이사 신선철 / 이사 강충구 / 이사 김희태 / 사무국장 박영태